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NEWS LETTER '민들레'

"Go, then, to all peoples everywhere and make them my disciples." Matt 28:19

May 18, 2010

Vol. 5 / No. 7

Contents

Letter from EVP	1
이스라엘성지를	
다녀와서	2-3
2010 졸업 및 학위	
수여식 명단	3
World News	4-6
GMU 후원자명단	6
School News	7
학사일정	7
전면광고	8

Editorial Staffs

President/ Dr. Kwang Shin Kim
 Chairman/ Pastor Paul G. Han
 EVP / Dr. Kyunam Choi
 Editor/ Dr. Hyunwan Kim
 Mr. James Koo
 E-mail: gm@gmuedu.org

GRACE MISSION UNIV.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 525-0088
 FAX (714) 525-0089
www.gmuedu.org

● Letter from EVP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키예프와 이태리 밀라노에 각각 1주일씩 단기 선교를 다녀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5년째 사역하시는 김교역목사님이 신학교 강의를 요청하셨고 이태리에서 28년째 사역하시는 박상연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의 청지기 세미나를 요청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동유럽과 서유럽 사역을 하러 가게 되니 잘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베스트 신학교에서는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창조론과 산상수훈 그리고 큐티와 신유를 강의하였고 밀라노 유럽을 위한 교회에서도 역시 창조론과 산상수훈 그리고 큐티를 가르쳤습니다. 틈틈이 집회도 하여 10번이 넘게 설교를 하였고 결신자들을 초청하였으며 안수기도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5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그 동안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동유럽과 서유럽의 선교 상황의 실체를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700만의 인구 중 겨우 30만 명이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태리는 6000만 인구 중 역시 30만 명 만이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단기 선교 동안 너무나 초라한 한국교회의 선교 성적표를 보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너무나 방심했고 너무나 나태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분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와 이태리의 복음화를 위해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신학교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베스트 신학교를 더욱 강화시켜서 수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태리에서도 이미 자유주의로 물든 알도파와 감리교를 변화시키는 길은 이태리인들을 위한 복음주의 신학교를 세워서 이태리 목사님들을 양성하고 그들로 나가서 개척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생도 여러분! 우리 GMU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태리의 신학교를 위해 신학교육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학교육 커리큘럼을 더욱 잘 세우고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전 세계 곳곳에 복음주의 신학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 GMU가 됩시다.

부총장/CEO 최규남박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2010년 3월 1일- 10일)

<여섯째날> 비아 돌로로사(고난의 길,(라틴어) 슬픔의 길,VIA DOLOROSA)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는 “고난의 길” 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가는 길의 이름이다.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라는 이름을 가진 옛 예루살렘의 실제 시가지를 걷다 보면 매우 소중하고 더욱 의미 있는 순간들을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의 빌라도법정 사형언도로부터 무덤(무덤교회)까지14개의 예수님이 머물렀던 장소가 있다. 현재 무덤교회는 6개 종파가 공동관리(로마카톨릭, 그리스,러시아 정교회, 이터오피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안 정교회, 콥트교회) 하고 있다.

시온산에는 마가의 다락방(행 12:12)이 있으며 밑에는 다윗의 묘가 있다는 전승이 있다.

히스기아 터널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지인 기혼샘으로 부터 실로암 못까지 530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은 앗 시리아의 포위에 대비한 최대 방위사업이었다. 터널의 기울기가 0. 06%로 양쪽의 고도 차이가 32cm밖에 되지 않는 정밀한 토목공학의 진수를 보여준다. 우리 일행은 차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이 터널을 약30분간 걸으면서 (물 깊이가 깊은 곳은 약 60cm) 탄성을 금할 수가 없었다.

통곡의 벽 AD 46년에 완성된 성전은AD 70년 로마가 파괴했다. 벽의 바닥에서 7번째까지의 벽은 오리지널이며 땅속으로 14줄의 벽이 있다. 황금돔 예루살렘의 옛 성전터에 있는 모스크 이 모리아산을 마호메트가 승전한것으로 주장하고 다시 마호메트가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북문). 이곳을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로 본다. 베데스다 연못:양문 곁을 지나면 있다.

베들레헴 (돗:방집) 예수님 탄생교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아랍시대에 만들어진 겸손의 문이 있는 곳 이곳이 성탄절날 전세계에 미사를 드리는 장면이 전파를 통해 중계되는 곳이다

<일곱째날>

텔 아비브 1967년 이전의 수도. 경제의 중심지이며 인구 56만명.

가이사라 헤롯대왕이 BC 22-11에 인공항구를 만들고 그다음 십자군이 중축했다 기독교 증거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사형 언도한 내용의 돌비석이 극장 옆에서 발견 되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가이사라 극장에서 연설할 때 신하들이 신의 소리라고 할때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행12:21-23) 바울이 로마 이송전 2년간 가택연금 된곳. 바울은 이곳에서 아그립바왕을 전도했다.(행 26장)

갈멜산(뜻: 나무가 많다): 엘리야의 기도 대결 1:850 대결(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400명) 복합적 대결 : 신권 대결 : 하나님과 이방신 과 왕권과 선지자권 이다. 엘리야 승천 후 엘리사가 잠시 유함(왕하2:5).

엘리사가 이 산에 있다가 수벰 여인을 만나 같이 그 집에 가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곳(왕하4:25-35)이다

므깃도 이스라엘 평야 중에서도 므깃도는 동서남북을 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으므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전투가 가장 많이 벌어졌던 곳이다. (왕상 9:15)므깃도에서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병거성(City of Chariots)과 마병장(Solomon’s Stables)이다.

이스라엘 평야 비옥한 땅으로 나봇의 포도밭(왕상 21장)과 아합의 궁(왕하 9장)이 있던곳이다.

하롯샘(삿 7장): 기드온 300용사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북쪽 모레산 앞에진지고이스라엘(기드온)은 하롯샘 곁에서 싸운 곳이다.

다불산 (삿 5장) 드보라, 예수님 변화 사건이 있던 곳이다.

헬몬산: 점핑 마운틴. 예수님을 낭떨어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곳.

Zippori (지포리) BC 55년 헤롯대왕 아버지 안티파테르. 갈릴리의 행정 중심도시이며 유대교의 핵심적인 책 편찬을 지포리에서 최초로했다.

나사렛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으로 지금은 아랍마을로 인구가 7만5천명.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다.

가나온인잔지기념교회 ; (히) 크파르(마을) 관나 예수님께서 첫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

<여덟째날 >

벧세다: 어부의 집 = 오병이어를 바친 소녀의 출신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 바로밑에 요단강의 근원지로 당시 황제 아우구스도 빌립이 만든 것이다. 신전들의 전시관이었던 이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신앙고백을 했다(마16:16)

단: 삿 16-18 전에는 라이스라고 부름 (히)요르단 = 요헤드+단 야라드(폴르다)+단 = 단에서 폴르다 = 요단강 요단강의 근원지는 단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이다. 단에서 나온 석비는 구약성경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솔로몬 병거성 하술을 지나 모세의 자리(마23장)가있는 고라신으로 갔다.

가버나움(히)=크파르(마을)나훔 = 나훔의 고향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와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린 곳이다. 베드로 수위권(받을위엄, 권위)교회가 이속에 있다.

팔복교회: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셨던 곳을 지나 마지막 장소인 갈릴리

바다 선상 예배를 위해 갈릴리 바다로 향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는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해 보았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 끝까지 사랑으로 일관하시며 결국은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다. 뽀뽀한 일정으로 돌아본 곳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모든 성지를 보며 우리 GMU 이름으로 이곳에 보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베드로처럼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성장 시켜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쉬운 점은 기간이 너무 짧은 것과 가능하면 우리 GMU 학생들이 모두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이었다.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을 더 알수 있도록 주님이 성지 순례로 인도하심이었다

신영자 전도사

2010 졸업 및 학위수여식 명단

대학원 (15명)

			
김용준	김귀홍	선은철	최국형
			
나두호	강성래	김지아	신영자
			
조원재	통신 강완식	김정우	김혜원
			
박혜정	이건재	임천규	

대학부

			
장병희	김원자	김지선	정기덕
			
한미령	통신 김경미	나대순	허창식

진심으로 종업과 학위 수여를 축복 드립니다.

GMU 후원자 명단 (Apr 1- May15, 2010)

Haidi Oh 집사님
 문정임 권사님
 이창수 집사님
 사랑의 빛 선교교회(김재문목사)
 미주비전교회(이서목사)
 생수의 강 교회(인동주목사)
 갈보리복음교회(이달은목사)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목사)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샌디에고갈보리교회
 육정모 집사님(복사용지10박스)

이의 간식과 책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 및 학생,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GMU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온라인 후원안내 ***

GMU Website (www.gmu.edu.org) 사이트에서 온라인 후원 신청을 통해서 직접 카드 등으로 웹 페이지에서 \$20, \$100, \$200, \$500, \$1,000 기탁 금액단위로 직접 온라인 결제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GMU World News

1. GMU 졸업생 최윤섭 선교사님

현재 아프카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동역하시는 형제님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형제님들 가정과 사역과 사업 위에 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메산골 선교사 오늘도 형제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안정 속에 부흥되어가고 있으며 제자사역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훈련 받으며 땅 끝까지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계3:6

토요일 이른 아침,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북쪽의 도시 "후잔"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쉬켄트에서 실크로드가 두 갈래길로 나뉘집니다.(서쪽과 남쪽) 타쉬켄트에서 남쪽 실크로드 길로 내려가면 천산산맥을 넘어 타지키스탄, 아프카니스탄으로 연결됩니다. "후잔"은 이 남쪽 실크로드 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두산베를 떠나 첫번째 사천미터짜리 산을 넘어 계곡(명칭: 아이니)을 따라 한참을 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사천미터짜리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면 도시 가운데로 호수 같은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가 나옵니다. 이곳이 "후잔"입니다. "후잔"에서 북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을 지나 러시아로 나가게 되고 동쪽으로는 키르기스탄이 위치한 선교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후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자 아크말 목사는 두산베에서 대학을 다니며 예수를 영접하였고 모스크바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십여년 전 고향인 후잔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과 이웃 친구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며 몇 번이나 교회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부인도 형제들도 이제는 변화되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아침 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가 비좁아 뻘뻘하게 끼어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열기는 쇠도 녹일듯 뜨거웠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모인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선교사의 사역에서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보고자 수 많은 고통의 시간 동안 씨를 뿌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버지께 이런 기쁨을 더 많이 드릴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복음의 씨를 뿌려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종들을 세워가십니다.

또한 주일저녁에는 러시아에 나가있는 제자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교제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러시아 선교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교사역 방향과 전략을 위해 모임을 갖고 후잔을 떠나 두산베로 길을 떠납니다. 다시 광야를 지나 사천 미터짜리 산 정상으로 향해서 가는데 3500M 쯤에서 차의 엔진이 꺼집니다. 다시 엔진에 시동을 걸지만 걸리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나이가 먹으니 육신이 약해져서 없던 병이 생기는 것처럼, 차도 십 년이 넘으니 이런저런 여러 고장이 생기나 봅니다. 난방을 위한 겨울 옷도 없이 길을 떠났는데 눈으로 가득 덮힌 산 속에서 얼어죽게 생겼습니다. 후두를 열고 이것 저것 만져보고 두드리지만 차는 꿈쩍을 안 합니다. 오늘이 나의 선교사 생활 마지막 날이 되는구나! 생각하니 그동안 해야 될 일들을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나의 잘못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회개 내용은 여기에 다 적지 못합니다.) 다시 차에 돌아와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봅니다. 차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웅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십 여년간 차 고치는 일을 한 나로서도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고친 것도 없고 바꾼 것도 없습니다. 선교사, 아직 사명이 남아 있어서 주님이 회개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나 봅니다. 부족하기 만한 선교사,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타직선교 19주년을 기념하며 성도들과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것은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난도 핍박도 권력도 죽음도 그 어느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뜨거운 사랑을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는 상급의 면류관 받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선한 싸움을 위해서 두산베 교회는 힘써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두메산골에서 선교사 올립니다.

2.이종호(원 재학), 박혜정 선교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소식

=====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랜 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3월29 부터 31일 까지 2박3일간 도미니카 청소년 티디 #2 (Emaus Camp Joven) 가 있었습니다.
전채덕 선교사님께서 S.L. 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주셨고 코스타리카에 박혜정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렉터로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82명의 청소년들이 9개의 테이블로 나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티디는 처음으로 60여명의 도미니카현지인과 한인교회 성도 팀멤버들의 섬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지만 역시 티디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다음 번에 꼭 팀멤버로 섬기겠다고 할 만큼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3개월전부터 산또도밍고 수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또도밍고 한인교회의 목회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80여명의 한인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한인예배가 끝난 후에는 아이티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미니카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티 예배가 부흥하고 있는데 3개월 전에 10 여명에서 지금은 40명이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티안들은 LA에 멕시코들 처럼 불법체류자들이 많고 주로 막노동과 힘든일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큰 지진으로 두고온 가족을 잃고 심령이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티 교회를 통해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미니칸 교회는 새로운 젊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월슨 목사님인데 앞으로 함께 인카운터 사역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여명이 모이고 있지만 앞으로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위성중계로 강의를 듣는 월드 비전 신학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목회자의 90% 이상이 정규신학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참 귀하고 필요한 사역입니다. 63명의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년제 대학인데 졸업하면 졸업장과 함께 정규 대학에서도 학점을 인정해줍니다.

이달 22일에 처음 1기 졸업생이 23명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졸업생들 가운데 교회개혁을 하시는 분들에게 후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중남미의 선교지로 파송할 선교사들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기쁨, 평안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8월에 있는 목회자 티디 #4 를 위하여
3. 도미니카 교회 월슨 목사님, 아이티 교회 띠또 목사님 성령충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4. 차 사고가 났는데 모든 일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5. 아이들의 등록금과 신학교 대학원 학비 후원을 위하여

In His Love,
도미니카 공화국
이종호,승현,Matthew,은지 드림
Joshua & Michelle Yi
cell: 809-430-8503 / 809-431-0370

3. 조성현 (통신) 선교사 소식

나바호 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바호 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 그리고 켈럼에서 교제하게 된 다른 한인 가족, 백인 부부, 나바호 아주머니 한분, 그리고 나바호 청년 1명, 모두 12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바호 아주머니가 교회의 1호 등록교인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예배 후에 나바호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기도를 부탁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이름은 Rock Springs Baptist Church였습니다. 제가 Grace Community Church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은 백인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교회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중순경 제가 후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감격적으로 어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1호 등록교인이 되신 나바호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 땅 안에 있는 사택같은 하우스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병환 중에 계셨는데 어느날 교회에서 일을 보시다 심장마비를 일으키셨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셨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돌아가셨다고 소문이 짝 퍼졌다는 겁니다.

그 분 말씀이 나바호 전통의식은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장소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혹 그곳이 교회일지라도 말입니다. 일종의 나바호 미신이겠지요.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목회하실때 침례교인이 약 1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바호 분은 2분만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알버키 한인 목회자 모임에 초대를 받아 사역소개와 간증 그리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교사의 사역은 마치 싸움과 같습니다. 격렬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날 제 맘속으로 스스로는 "원래 제가 싸움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알버키에서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내가 선교사역은 싸움과도 같다고 말을 했을까?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모든지 거저 먹는 것은 없구나... 와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주님과 사단의 전쟁 중에 내가 전사로, 싸움으로 이곳에 차출되었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은 당연하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또한 주님께서 바로 이루시겠구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돌아가셨다는 아주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을까요? 누가 그러한 소문을 확대 해서 퍼트렸을까요? 분명코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죽게 하길 원하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악하고 힘이 없는 듯한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욱 제 맘속에 불같은 전의가 불타오릅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묵상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욱 찬양하고 더욱 전도하고 더욱 환자치료하고 제가 자유게시판에 쓴 글처럼 더욱 미친 듯이 죽기 살기로 사역에 선교에 달려들자.....

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바호와 Native American 선교에, 구원에 열정을 가지신 믿음의 동지여러분들의 기도 지원 없이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동지여러분 나바호 선교를 위해 더욱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바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Rock Springs는 40번 프리웨이와 암트랙 기차역이 있는 켈럼에서 북으로 7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나바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지나가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선교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물론 레저베이션안에 있습니다. 나바호와 Native American 선교를 위해 선교센터로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나바호 목회와 앞으로 계속되어질 선교 센터 건립을 위해 재정 후원과 관련해서 기도 부탁 드립니다.

진정으로 Native American 선교와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는 많은 한인 교회와 개인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미국 남침례교회에서는 사역의 기회를 주었지만 사역을 위한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렇듯 귀한 기회를 주신 주님의 뜻이 분명코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동지 여러분 나바호 선교를 위해 더욱 중보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뉴스 레터 메일 링 신청 및 추천 ***
 뉴스 레터를 정기적으로 E-mail 로 발송해 드립니다.
 메일링 서비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뉴스레터 발송 주소인 gmu@gmuedu.org 혹은 administration@gmuedu.org 으로 E-메일 주소와 연락처, 이름 정보를 메일로 보내 주시면 메일 링 리스트에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학교 문의 전화 : 714-525- 0088
 홈페이지 : <http://www.gmuedu.org>

GMU School News

1. 지난 4월 30일-5월2일(3일간)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된 뮤지컬 HIS' LIFE 공연에 GMU를 홍보하는 스폰서와 부스를 마련하여 행사에 참여 하였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2. 지난 5월 8일 GMU가 사용하는 미라클 센터 청소에 함께 참여신 GMU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3. 5월 18일 채플 시간은 2010 봄학기 종강 예배 및 졸업생 환송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참석하신 모든 교수, 학생, 교직원, 후원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4. 5월 19일에 Accreditation기관인 AB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에서 학교 방문을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 5월 25일(화) 4시에 창조과학관 시설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관 개관식은 6월 5일에 있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창조과학 전시장을 많이 방문 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6. 2010 GMU 졸업 및 학위수여식이 **6월 7(월) 오후 7시30분**, Vision Center에서 열립니다. 많이 참석 하셔서 축복 해주시고 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졸업생들과 교수님들은 **6월 7일** 졸업식 날 **5:30PM**에 Vision Center 2층 Fellowship Rom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 배우자를 동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졸업생들은 졸업식 날 **3:30pm**까지 오시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7. 2010 여름 학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4-17일의 특강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워드특강" 을 신청하였습니다.

- 1) 워드 특강 (1학점) - 6월 14-17일 (6:00 - 10:00 pm)
 - 2) 헬라이어특강 (3학점) - Aug. 2-19 (6:00 - 10:00 pm, 3주간-월화수목)
 - 3) 교회성장특강(1학점) - Aug. 23-25 (6:00 - 10:00 pm)
- 학점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식사비와 교재비를 포함한 등록비만 내고 들을 수 있습니다.

8. 2010 가을 학기 신입학생을 모집합니다.

GMU는 AB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및 TRACS(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Office) 인준된 Accreditation 기관이며 International Students에게 정식 Certificates of Eligibility (Form I-20)를 발행해 드립니다.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소개 바랍니다

9. 학생증 및 도서관 ID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도서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사진이 없으신 분은 행정처를 방문하시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일정

교수평가서 배부	5월 10-18
종강예배	5월 18 (화) 7:00 pm
모든 과목 종강	5월 20 (목)
졸업여행	6월 3-5 (목-토)
창조과학관 개관식	6월 5 (토) 2:00 pm
졸업 및 학위수여식	6월 7 (월, Vision Center) 7:30 PM
성적제출 마감	6월 11
워드 특강	6월 14-18
헬라이어 여름학기	8월 2-19 (3주간 - 월, 화, 수, 목, 6:00pm-10:00pm, 3학점)
가을개강특강	Aug. 23-25 (6:00 - 10:00 pm, 1학점)
가을학기등록	Aug. 23-27
교수회의	Aug. 26 (목) 5:30 pm
개강예배	Aug. 26 (목) 7:30 pm
신입생오리엔테이션	Aug. 26 (목) 8:30 pm
성경시험	Aug. 26 (목) 9:00 pm
수업시작	Aug. 30 (월) 5:30 pm
등록마감	Sep. 3
수강변경마감	Sep. 10
휴강(총회)	Sep 20-23
Thanksgiving Holiday	Nov. 25
학기말고사	Dec. 13-16
성적제출 마감	Jan. 7
겨울방학 특강	Jan 31-Feb.2
2011 봄학기등록	Jan. 31- Feb. 4

GMU 강의 시간

(과목의 학점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월, 화, 목 요일

1교시: 5:30 pm-8:00 pm(화: 7:10 pm)

2교시: 8:30 pm-11:00 pm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1995년에 설립된 GMU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국제 총회(PCIGA) 총회 신학교로서 지난 15년 동안 250명의 졸업생 중 50여명의 선교사와 50여명의 목회자가 현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GMU는 TRACS(미국 기독교 대학 연합회)/ABHE의 회원 학교로서 학생들에게 성경 및 신학적 지식과 목회 기술을 습득 하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고 제자삼는 영적 열정을 고취하게 한다.



건실한 인격. 강한 군사. 세계 선교

- 첫째 영성개발
- 둘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
- 셋째 일반 학문에 대한 소양
- 넷째 신앙 인격의 함양
- 다섯째 건전한 정서와 태도의 개발
- 여섯째 성령님의 역사를 의존하는 믿음
- 일곱째 자신의 사역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GRACE MISSION UNIVERSITY
 건실한 인격. 강한 군사. 세계 선교

CONTACT INFORMATION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FAX: 714-525-0089
 EMAIL: gmuadmission@yahoo.com
 WEB SITE: www.gmu.edu